

## 찾아드는 예인의 숨결 찾아 떠난 기행

《화첩기행》 펴낸 김병중씨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은 뒤에 아스름한 자취를 남긴다. 소쩍새는 허공에 발자국을 찍고 당나귀는 딸랑거리며 눈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한때 우리 곁에서 뜨거운 예술혼을 불살랐던 예인(藝人)들의 흔적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희미하다. 서울대 미대 김병중 교수(46)가 화구를 들고 점점 찾아드는 예인들의 숨결을 찾아 떠났다. 이번에 펴낸 《화첩기행》(호형출판)에서 그는 우리 산하에 넋을 뿌렸던 예인들의 삶을 호명한다.

“개인적으로 문화선진국을 여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인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데 열심이였지요. 그러나 20여년 동안 다녀본 우리 예인들의 뒷자리는 황폐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의 도공들은 무덤 하나 없는 형편이죠. 우울과 분노의 심정으로 뒤척이면서 마음에 써왔던 것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2월부터 일간지에 연재했던 ‘화첩기행’ 중 국내 예인에 관한 30편의 글을 묶은 것이다. 남도창 같은 한의 노래 〈목포의

눈물〉이  
아룡진  
이난영의  
목포를



시작으로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피어나던 이효석의 봉평을 거쳐 흑산도 유배지에서 풀려나 오른 최면암의 금강산까지 이어진다. 시(詩)·서(書)·화(畫)·가(歌)·무(舞)의 예인의 삶과 그의 탯줄이었던 산하를 선곡은 수목화로 그려냈다. 당대에 성공했던 행복한 예술가보다는 대부분 시대와 불화한 예인들이다.

“풍토가 예술을 낳습니다. 자연과 예술양식은 불가분의 관계죠. 예컨대 남도의 산악형태와 기후를 빼고는 우리의 남화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판소리도 지리산 산악지역에서는 단순 소박하면서도 역센 소리인 동편제가 나왔고, 남도평야에서는 들판처럼 부드럽고 애잔한 서편제가 나왔지요.”

주로 기차나 버스로 예인의 발자취를 찾았다. 겨울의 금강산에서는 손이 곱아오는 추위 속에도 들맹이에 화선지를 받치고 현장의 숨결을 살렸다. 시적인 직관과 색채적 글도 그들의 삶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 자신이 세계적 동양화가지만 한편 뛰어난 작가이기에 가능했다. 서울대 미대 재학시절 시·소설·희곡으로 대학 문학상에, 희곡과 평론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문학청년이었다. 한편 성균관대 동양철학대에서 노자철학과 유가미학을 공부한 철학도기도 하다.

“물질이 아닌 ‘정신’, 문(文)·사(史)·철(哲)의 통합적 세계관이 동양정신의 핵심입니다. 예술 속에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종속문화와 수입예술이 판치는 현실에서 우리의 정서와 정체성을 찾는 기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는 3월 가나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 6~7월에는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이 책에 소개된 그림을 모은 《화첩기행전》도 예정돼 있다. 김교수는 또다시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들 가슴에 피는 꽃인 예술의 숨겨진 발자취를 찾아서.

— 박천홍 기자

## ‘트로트’에서 서태지 이후 가요의 흐름

《한국 대중가요사》 펴낸 이영미씨



“전 트로트를 공부합니다”하고 누군가 말한다면, 대개는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노래방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혼자 서글픈 마음에 저도 몰래 한두 번씩 불러보는 유행가일 뿐이지, 연구할 거리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트로트는 저학력과 가난의 취향을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대중가요가 걸어온 길을 《한국 대중가요사》(시공사)에 담은 이영미씨(38,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위원)라면 아마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3류 노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가 대중가요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리도 바로 여기다. 한 시대의 가요를 만드는 것은 가수도, 작곡자도, 음반사도 아니라 바로 대중이라는 주장이다.

“원래 마당극·민요·탈춤 등 구비전승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을 동시대로 옮겨보니 민중가요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현상이 보이더군요. 대중매체의 시대에 구비전승되는 노래가 있다니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운동쪽으로 관심사를 옮겨게 됐습니다.”

노래운동에 대한 이씨의 관심은 82년 고려대 교지에 ‘대중가요와 민요와 운동가요’라는 글로 처음 드러나고 이어 84년 출간된 무크 《노래》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깊어진다. 김창남, 김해식 등이 참여한 《노래》는 비록 운동의 차원이었지만, 90년대 나타난 대중가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시초랄 수 있었다.

“대다수의 전승문화와 마찬가지로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자입니다. 각 시대의 히트곡에는 수용자의

취향이 강하게 스며듭니다. 조작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취향은 건강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대중가요사를 이입의 역사로 본다. 해방 전에는 주로 일본 대중음악을, 해방 후에는 미국 대중음악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발전했다는 주장이다. 유행 창가 이후 50년대 말까지는 트로트, 60년대는 이지리싱, 70년대는 포크, 80년대는 발라드가 지배적이었다고 밝힌다. 또 각 노래의 악보를 통해 시대상의 변화가 선율에 미친 영향도 보여준다.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포크로 대변되는 70년대 청년문화다.

“포크음악을 좋아하던 언니, 오빠 덕분에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즐겨 들었죠. 김민기·송창식·양희은·신중현·김추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타줄도 튕겨봤었죠.”

그간 뒷이야기의 형식으로 대중음악사를 다룬 책은 많았지만, 전문적인 통사의 수준으로 나온 책은 재일교포 박찬호씨가 매니아적인 열정으로 해방 전 가요사를

다룬 《한국가요사》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대중음악 관련서에 새로운 물꼬를 텃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도 밝히듯이 아직까지 1차적인 서지학적 연구도 나와 있지 않아

과제는 새롭게 남는다. 그간 이씨는 노래와 연극을 통해 대중문화의 한 부분을 밝혀 왔다.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서태지와 꽃다지》, 《이강백 희곡의 세계》

등을 저술한 이씨는 앞으로 대중들이 읽기 쉬운 방식으로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엮을 생각이다.

— 김연수 기자



## 앤티크, 작은 역사를 만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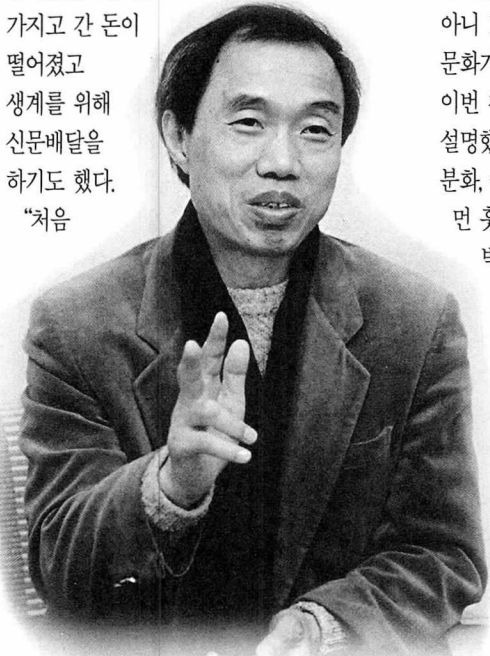
《앤티크 문화예술기행》 펴낸 김재규씨

‘앤티크’와 ‘골동품’은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앤티크’라고 하면 치부의 수단이면서도 부동산이나 보석처럼 노골적이지 않고 심미안과 문화적 소양도 은근히 자랑할 수 있는, 상류층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다. 앤티크 딜러 김재규씨(54)는 《앤티크 문화예술기행》(한길아트)을 통해 앤티크는 생활문화의 기록처로서 삶을 접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제봉 타자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실과 바늘뿐 아니라 사용설명서, 지갑, 안경, 가족사진, 가품은 은밀한 연애편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두 세기 전의 여인을 만난다는 정서적인 감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생활 한 부분과 당시의 작은 역사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앤티크에 매료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무역업을 하다가 만난 우간다 대통령에게서 보통 알고 있는 아프리카와는 전혀 다른 유럽적 이미지를 만난 후 무작정 영국으로 떠났다. 시야를 넓혀보자는 생각에서였다. 3개월 예정이었지만 영국 문화, 나아가 유럽문화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까지 불러들였지만 곧

가지고 간 돈이 떨어졌고 생계를 위해 신문배달을 하기도 했다. “처음



에는 오래된 책을 사 모았습니다. 그러다 영사기, 타이프라이터 등 잡다한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문화사·예술사를 모르고서는 수집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행하기 좋아해서 등록한 학교마다 매번 쫓겨났고 도서관을 드나들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앤티크는 관상용이 아니라 100년 이상 잘 길들여 놓은 생활용품이다. 긴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내뿜는 기운들이 마치 나이테처럼 응축된다. 100년된 나무를 써먹듯 그제서야 앤티크는 그 자체로 문화와 역사가 된다. 이 책에서 말하려 한 것도 단순히 앤티크의 종류나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리는 문화의 한 켠으로서의 앤티크다.

“대중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가운데서 앤티크 아닌 것을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가구, 고서화, 도자기처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재 품목이나 타일·커튼·회장·리그 등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이라면 뭐든 100년이 지나면 앤티크가 되지요. 이 신발도, 옷도 앤티크입니다.”

김재규씨는 자신의 오래된 옷과 신발을 가리켰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건은 10년, 아니 1, 2년만 지나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문화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 생활문화로서 앤티크를 설명했다면 다음에는 고성기행 등 주제별로 문화, 좀더 심화된 내용을 담으려 한다.

먼 훗날에는 자신이 모은 앤티크들로 박물관의 한 코너를 꾸미겠다는 꿈도 있지만 김재규씨의 진짜 꿈은 자유여행가다. 지도도 없이 세상을 떠돌며 세월의 때가 끼어 비로소 ‘아름다워진 것들’을 구경하고 싶다. — 이현주 기자

## 섬의 역사로 읽는 국제관계

《섬의 세계사》 펴낸 박영준씨

공군에 복무하는 박영준(34) 소령이 《섬의 세계사》(가람기획)를 펴냈다. 그가 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발상의 전환 덕분. ‘한권으로 읽은...’ 류의 대중 역사서가 서점가를 점령하던 시절, 그도 한번쯤 대중을 위한 국제관계사를 쓰고 싶었다. 섬에 얽힌 역사를 풀어쓰면 일반 독자들이 복잡한 국제관계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많은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군에 얽매인 몸이기 때문에 자료구입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사를 조망하는 역사서를 쓰면 자칫 딱딱한 글이 될 듯 싶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사적 자료를 많이 참조했다. 섬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살피는 한편 문화사적 측면도 강조한 것이다.

우선 우리 역사에 나타난 섬 즉, 장보고의 활약이 빛나는 장도, 조선 건국의 거처인 위화도, 하멜표류기의 무대인 제주도, 그리고 강화도·거문도·독도 등에 얽힌 사건을 더듬는다. 아시아의 섬 가운데 인류 조상의 출현지 자바, 일본의 유구함병지 오키나와, 중국의 외세유입 관문인 홍콩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태평양 및 아메리카, 유럽과 대서양 주변 섬에 대한 역사 또한 더듬는다.

“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간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섬을 이해하는 것은 곧 오늘의 역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섬의 역사를 읽으면 오늘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의 경우,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남기려는 것은 차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속셈으로 설명한다. 이는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섬은 힘의 우위를 점한 나라에 귀속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섬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힘의 논리 가운데 경제가 군사적 역할보다 강조되는 오늘날 섬이 차지하는 가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가 이제라도 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때라고 강조한다.

“자국 이기주의를 경계하지만 국경에 대한 인식제고는 필요합니다. 더욱 통일 이후 주변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보호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섬을 무대로 하는 대중을 위한 국제관계사를 엮은 그는 후속작업으로 ‘전쟁을 통한 국가형성 과정’과 러시아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획가에 대한 글을 준비할 계획이다. 맹목적 소비니즘 소설이 아닌 현실 가능한 ‘허구적’ 군사소설도 쓸 생각이다. — 오완진 기자

